

#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가치관

Parent's Suppor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Sexual Values

민하영(Ha-Yeoung Min)<sup>1)</sup>

김경화(Koung-Hwa Kim)<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uppor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sexual values. The subjects were 137 adolescents who attended high school in Keoungbok. Statistical techniques were Factor Analysis, Crosstabs, Two-way ANOVA, Scheffe' test,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who more perceived supportive parenting from a parent were more likely to consult with parents about one's own sexual problems.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adolescent sexual values by parent's supportive parenting levels or gender. Adolescents who perceived more supportive parenting from parent, or who were boys we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sexual valu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supportive parenting level and gender on adolescent sexual values. Finall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ender was the stronger predictor of adolescent sexual values than parent's supportive parenting.

**Key Words** : 청소년의 성가치관(adolescent sexual values),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parent's supportive parenting), 청소년 성교육(adolescent sexual education).

## I. 서론

1982년 문교부에서 학교 성교육 실시를 발표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2005)에서는 바른 성지

식과 성윤리의식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실질적인 성교육 실시 유도, 성매매 유혹 및 성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 보호, 그리고 성별에 따른 제

<sup>1)</sup>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sup>2)</sup>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oung-Hwa Kim,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 of DaeGu, 330 Kumlak-1ri, Hayang-up, Kyeongsan-si, Gyeongbuk, 706-763, Korea  
E-mail : kwkim@cu.ac.kr

한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학교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관련교과나 재량활동 또는 특별활동 등을 통해 학년별 10시간 내외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바람직한 성태도 및 성가치관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책임있고 건강한 성행동을 주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공식적인 성교육 시간을 통해 성에 대한 생리적 정보나 과학적 지식의 전달과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성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의 발달이나 신체적 생리적 변화 및 임신과 피임 또는 성병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전달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 비해 성태도나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혜원 · 이해경, 2000).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성인이나 청소년의 부적절한 성행동이 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부족으로 이해되기보다 왜곡되고 잘못된 성가치관과 성태도로 해석되는 현실(김혜원 · 이해경, 2000; 장필화 · 조형, 1992)에서 청소년의 성가치관 교육은 성교육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인기 진입을 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성가치관은 이성교제 및 성행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성인기 성행동을 안내하는 방향 지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발달단계의 성가치관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성가치관을 이해하거나

교육시키는데 도움을 줄만한 유용한 자료나 정보를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청소년의 성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로 성지식과 성태도에 관한 것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 하는 것(김선정 · 문인옥, 2004; 김신정 · 양순옥, 2004; 김현정 · 이귀옥, 2000; 박효미 · 임미영, 2003; 송정아 · 최혜영 1999; 이길자 · 정은자, 2001; 정금희 · 김신정 · 양순옥, 2003)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태도는 성가치관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태도 연구는 성가치관 연구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태도와 성가치관은 개념상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도는 상황이나 대상물 또는 인간 집단에 대한 친근감과 혐오감을 말한다. 태도는 호, 불호의 감정으로 나타나지만 인지 특히 사물에 대한 신념과 관련이 있으며 사물에 대해 취하는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태도는 일차적으로 호, 불호의 감정으로 표현되지만 호, 불호와 함께 인간의 신념이나 행위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감정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태도는 중심되는 일련의 가치들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Rockeach, 1973), 태도와 가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치는 영속적인 신념으로, 존재의 궁극적 상태와 특정 행동에 대한 지속적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 믿음 체계의 중심이며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최정훈 · 이훈구 · 한종철 · 윤진 · 정찬섭 · 오경자, 2001; Rockeach, 1973). 이렇듯 태도와 가치에 대해 내려지는 개념적 구분을 토대로 할 때 성태도는 성에 대해 가지는 호, 불호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성가치관은 성태도를 유발하는 중심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가치관에서 중시되는 것은 성을 긍정적 시각에서 보는 태도와 이중적 성가치관으

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성을 금기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스런 인간의 현상으로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을 금기시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왜곡되고 음성화된 성지식과 성정보를 양산하는 근원으로 기능했음을 고려할 때, 2차 성징의 발달로 인해 형성되는 청소년의 성 호기심과 성 충동을 자연스런 발달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올바른 성지식과 성정보를 추구하도록 하는 데 기본조건이며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성가치관 형성에서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중적 성가치관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성 평등적 가치를 갖는 것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유교 문화안에서 강화되어온 가부장적 가치관은 남성 중심의 성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 및 그에 따른 이중적 성가치관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은 남성에게 보다 허용적 성적 행동 기준을, 여성에게 보다 엄격한 성적 행동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남성의 혼전 성교나 혼외 성교 또는 성폭력이나 매매춘을 정당화시키는 왜곡된 성문화를 발달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가치관은 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성행동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sexuality)에 있어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가치관은 자연스런 성적 호기심과 함께 성을 새롭게 알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성 정보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기 보호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인 왜곡됨을 왜곡되게, 성적인 과장됨을 과장

되게, 성적인 불평등을 불평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청소년이 지니는 바람직한 성가치관 으로부터 발현될 수 있다. 결국 바람직한 성가치관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성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성행동을 청소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명한 자기 보호 요인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은 자기 보호를 위한 자기 능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가치관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의 토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가정 안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더욱 어렵다. 가정내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일차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의 주 담당자로 역할 수행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받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이 가정과 사회가 함께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때 성공할 수 있듯이, 자녀의 성교육 역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교를 포함한 사회가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해 보다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과 달리 부모를 포함한 가정은 청소년 자녀의 성교육을 외면하거나 간과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교육 중 성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정내 부모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 성교육의 동반자로서 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을 부모와 관련시켜 연구한 것(김영혜, 2000; Baldwin & Baranoski, 1990; Fisher, 1988)은 거의 없다. 다만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

소통과 청소년의 성을 연결시켜 살펴본 소수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 지지적 양육행동이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상대방의 가치와 존엄을 인정함으로써 표현되는 양육행동이라 할 수 있다(Pettit, Bates, & Dodge, 1997). 이러한 지지적 양육행동 경험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경험되는 정서적 수용감과 승인감은 이성에 대한 생각과 태도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정서적 지지감과 온정감 그리고 애정은 자신과 다른 성적 존재를 차별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의 동질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 성교육에서 강조되는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이 양성평등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함을 고려할 때, 수직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지지적 양육행동은 수평적 관계로 시작되어야 하는 이성관계에서 청소년이 이성에 대해, 또는 이성의 성에 대해 보다 평등한 시각과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토대로 역할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에 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Booth, Rubin, & Rose-Krasnor, 1998; Pettit et al., 1997)과 여학생의 성가치관이 남학생의 성가치관에 비해 보다 보수적이라는 점(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 1995; 안양숙·정혜정·이정숙, 1997; 전경숙·이효영·이선자, 2004)을 고려해서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미치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의 상대적 설명력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연구문제 이전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상담 대상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문제 의 의논 상대는 대부분 친구이며(이문희, 1993), 청소년의 성정보가 부모보다 친구로부터 더 많이 제공된다는 연구결과(Moran & Corley, 1991)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구 편향의 성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만약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성상담 우선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면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성상담 우선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가치관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청소년의 성교육 중 성가치관에서 부모가 역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성교육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지식 습득과 달리 가치관 형성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성교제와 성적 행동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성인기에 올바른 성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인기 진입을 앞둔 고교시절에 이미 바람직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사회와 가정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가정내 자료를 제공하고자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예정된 경북지역내 137명 남녀 2학년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학생 70(51.1%)명, 여학생 67(48.9%)명므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 경우는 각각 6(4.4%)명과 2(1.5%)명이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계신 경우는 없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109명(79.6%), 50대 24명(17.5%), 60대가 2명(1.5%)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8명(5.8%), 40대가 111(81.0%), 50대가 8명(5.8%), 60대가 2명(1.5%)이었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가 37명(27.0%), 고졸이 72명(52.6%), 대졸 이상이 22명(16.1%)이었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가 40명(29.2%), 고졸이 84명(61.3%), 대졸 이상이 9명(6.6%)이었다.

### 2. 연구척도

질문지 조사를 위한 연구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의 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

tionship Inventory : NRI), Lempers, Clark-Lempers와 Simons(1989)가 개발한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부모님은 칭찬을 자주 해주신다’, ‘숨기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모님과 친하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내용 타당도는 3명의 아동학 전공자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0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묻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부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의 경우 역산 처리하였다. 8점에서 40점 사이의 응답범위 중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임을 의미한다.

#### 2) 성가치관

성가치관 척도는 김혜원과 이해경(2000), 이문희(1993), 장필화(1992) 등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성공정성과 성평등성으로 구성된 척도는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젠 값이 1이상인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성공정성(3문항)과 성평등성(6문항) 요인으로 구분되는 9문항의 전체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성공정성은 성을 금기시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의미한다. 성평등성은 가부장적 성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한다.

‘성은 감추어야 할 부분이다’, ‘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섹스란 단어를 들으면 웬지 어색하다’의 성공정성 문항과 ‘육체적 순결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성은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더 낫다’ 등의 성평등성 문항으로 구성된 성가치관의 각 문항

은 ‘매우 그렇다(1점)’,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6으로 나타났다. 성가치관 척도의 평균(표준편차)은 33.51(6.04)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성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다 많이 인식하며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벗어나 성평등적 의식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가치관 중 성공정성(3문항)의 응답가능 범위는 3점에서 1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52로 나타났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이 문항수에 의해 영향 받음(성태제, 1995; 이근희, 2002)을 고려해 볼 때,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된 3문항 성공정성 척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이 .52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가치관 하위척도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문항으로 이루어진 성공정성 척도의 평균(표준편차)은 11.75(2.10)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성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가치관 중 성평등성(6문항)의 응답가능 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4로 나타났다. 성평등성 척도의 평균(표준편차)은 21.76(4.82)이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벗어나 성에 관해 평등적인 의식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수집 절차

경북지역내 임의 선정된 남녀 고등학교 각각

1개교에 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허락받은 뒤, 학교 내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아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질문지의 응답 시간은 15분 정도였으며, 응답 후 보건교사를 통해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요인분석, 교차분석, 이원변량분석, Scheffe' 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성상담

<표 1> 청소년의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

구 분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			
	학교 선생님	친구	부모님	기타
사례수	2 (1.6)	72 (54.1)	43 (32.3)	16 (12.0)

<표 2>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

변 인	구분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		
		부모	친구	기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	낮음	6(12.5)	34(70.8)	8(16.7)
	중간	15(35.7)	22(52.4)	5(11.9)
	높음	22(51.2)	16(37.2)	5(11.6)
$\chi^2$		16.02*** (df=4)		

주1) \*\*\* $p < .001$

〈표 3〉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성가치관

	성가치관				성공정성				성평등성			
	SS	df	MS	F	SS	df	MS	F	SS	df	MS	F
수정보형	1068.75	5	213.75	7.19***	103.90	5	20.78	5.47***	531.57	5	106.31	5.29***
절 편	148316.7	1	148316.7	4999.26***	18197.71	1	18197.71	4790.21***	62610.13	1	62610.13	3114.48***
부모양육행동(A)	281.21	2	140.60	4.73**	17.68	2	8.84	2.33	168.59	2	84.30	4.19*
성별(B)	816.74	1	816.74	27.48***	89.83	1	89.83	23.65***	364.83	1	364.83	18.15**
A×B	91.46	2	45.73	1.54	3.72	2	1.86	.49	61.30	2	30.65	1.53
오 차	3893.49	131	29.72		497.66	131	3.80		2633.48	131	20.10	

주1)  $p < .05$  \*\* $p < .01$  \*\*\* $p < .001$

우선 대상간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친구(72명, 54.1%)였으며 부모(43명, 32.3%), 기타, 학교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문제의 의논 상대가 대부분 친구라 응답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문희, 1993)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청소년의 성정보가 부모보다 친구로부터 더 많이 제공된다는 연구 결과(Moran & Corley, 1991)와 유사한 것으로, 청소년의 성관련 부분에서 부모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 점수 중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높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부모 양육행동에 따른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간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청소년의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에 차이를 보였다( $\chi^2=16.02, p < .001$ ).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성 상담시 또래보다 부모를 우선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부모와 거의 상담

하지 않은 채 친구와 상의하거나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관련 부분에서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성가치관

청소년의 성가치관은 성별( $F=27.48, p < .001$ )과 부모의 양육행동( $F=4.73, p < .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가치관이 평등적이었으며,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평등적인 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차없이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평등적인 성가치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성공정성의 경우 성별 효과( $F=23.65, p < .001$ )는 있으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성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공정성에 대한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표 4〉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성가치관 평균 및 Scheffe' 사후검증

변인	변인구분	성가치관	성긍정성	성평등성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	낮음	31.67(.81) a	11.27(.29)	20.40(.67) a
	중간	34.06(.82) b	12.07(.29)	21.98(.68) ab
	높음	35.17(.84) b	12.00(.30)	23.17(.69) b
성별	남학생(154)	36.13(.67)	12.61(.24)	23.51(.55)
	여학생(118)	31.14(.68)	10.95(.24)	20.18(.56)

주1) ab 동일한 문자간에는 집단간 차이 없음을 의미.

보면 성긍정성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평등성의 경우, 성별( $F=18.15, p<.001$ )과 부모의 양육행동( $F=4.19, p<.05$ )이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를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성평등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부장적 성인식을 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다 지지적이라 평가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부장적 성인식에서 탈피해 보다 성평등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별과 부모의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가 없으므로, 성차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에 대한 긍정성이나 평등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2000년 MBC 청소년 백서'의 연구 결과 및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결과(박희성 등, 1995; 전경숙 등, 2004; Crawford & Popp, 2003; Milhausen, & Herold, 1999)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의 상대적 설명력

청소년의 성가치관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나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 $\beta=.24, p<.01$ )보다 성별( $\beta=.39, p<.001$ )에 따라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긍정성은 성별( $\beta=.38, p<.001$ )에 의해서만 설명되며 성평등성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에 의해 각각 유의하게 설명되나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 $\beta=.24, p<.01$ )보다 성별( $\beta=.32, p<.001$ )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성가치관			성긍정성			성평등성		
		B	Std. Error	$\beta$	B	Std. Error	$\beta$	B	Std. Error	$\beta$
	상수	22.20	3.01		9.16	1.07		13.04	2.47	
	부모양육행동	.31	.10	.24**	.06	.04	.14	.25	.08	.24**
	성별	4.65	.94	.39***	1.59	.34	.38***	3.06	.77	.32***
	R <sup>2</sup>		.19			.15			.15	
	F값	15.61(2,134)***			12.02(2,134)***			11.34(2,134)***		

주1) \*\* $p<.01$  \*\*\* $p<.001$

주2) 성별 남학생-1, 여학생-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음.



#### IV. 논의 및 결론

학교 안에서의 성교육이 성지식, 성태도, 성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성지식과 달리 성태도나 성가치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태도나 성가치관의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공식적 성태도나 성가치 교육 이전에 성태도나 성가치에 관한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태도나 성가치관 교육에 있어 가정 내 부모는 중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관련 상담 우선 대상 연구에서 보고되듯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나 고민 상담의 주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또래나 친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교육에서 부모가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소년 성교육의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공식적 성교육과 함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오랜 형성 기간을 필요로 하는 성가치관의 경우 가정에서부터 그 토대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경북지역내 137명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가치관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연결시켜 살펴봄으로써, 성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써 부모의 역할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상담 대상간의 관계 및 성별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에 따른 성가치관, 그리고 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연구문제로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상담 우선 대상은 1차적으로 친구나 또래이나,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클 경우 부모와 우선 성상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상담 대상이 대부분 친구나 또래라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성과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에서 부모가 소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지지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성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우선 상담하는 비율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모가 지지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모를 신뢰하고 믿을만한 상담자이며 안내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거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 평가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청소년에 비해 성관계나 데이팅 또는 피임에 대해 부모와 좀 더 많이 이야기 한다고 보고한 Baldwin과 Baranovski(199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성상담 우선 대상이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의 성 관련 부분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의 성가치관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성공정성과 성평등성 모두에서 적용된다. 성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성을 평등하게 보지 못하는 이중적 성가치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을 개방적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안양숙 등, 1997; 전경숙 등, 2004; DeGaston, Weed, & Jensen, 1996)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중적 성기준에 있어 보다 보수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여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성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희성 등, 1995; 전경숙 등, 2004; Crawford & Popp, 2003; Milhausen, & Herold, 1999)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평등적 시각과 대립되는 이중적 성가치나 가부장적 성가치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사회학습이론(Sprecher, Regan, McKinney, Maxwell, & Wazienski, 1997)이나 진화론적 시각(Weideman, 1993) 또는 유교문화적 시각(장필화, 조형, 1992)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나타나는 성가치관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성지식에 대한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성가치관의 성차를 줄이는 노력이 추후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보다 더 주의깊게 경주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생의 성가치관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이라 지각하는 청소년의 성가치관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벗어나 보다 더 성 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대한 성별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간 상호작용 효과가 없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남녀 학생간 차이 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부모로부터 지지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성 이중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 평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인격적 존중을 토대로 나타남을 고려해 볼 때, 부모로부터의 지지적 양육경험은 타인에 대한 존중, 이성애에 대한 존중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성에 대한 평등적 가치관을 학습하거나 받아들이는데 보다 용이한 환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교육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공식적인 성교육의 효과를 진작시키는 데 간접적이거나 의미있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교육의 사회적 지원 자원으로 부모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최근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점(AAP, 2001)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함의는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를 포함하는 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성가치관 특히 성 평등적 가치관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보다 청소년의 성별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 성별 효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문제 1)의 결과와 연결시켜 해석될 수 있다. (연구문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담 우선 대상 순위에 있어 부모는 일반적으로 친구나 또래보다 차선에 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높은 지지적 양육행동을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는 친구나 또래보다 부모와 상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 듯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모의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영향 때문에 성가치관, 특히 성평등적 가치관

에서도 성별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청소년의 성가치관의 설명력에 성별의 효과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은 성가치관과 관련한 성교육에 있어 성별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성을 자유롭게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뒤처지고, 이중적 성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성을 평등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힘이 부족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학생과 차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여학생들과 다른 수준의 성가치관을 지니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일 수준의 양성 평등적 시각에서 성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성가치관 형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가치관의 남녀 차이를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성교육 프로그램 안에 마련될 때, 보다 양성 평등적인 성가치관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청소년의 성가치관을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연구는 경북지역내 137명의 한정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인구학적 변인인 성별만을 가지고 성가치관을 살펴보았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가치관을 부모관련 변인과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평등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이를 실현화하려는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

정내 부모는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한 주 양육자로서의 책임이 어느 정도 면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성평등적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 연구는 청소년 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부모 참여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0). 학교 성교육 활성화 방안. [www.moe.go.kr](http://www.moe.go.kr)
- 교육인적자원부(2005).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 [www.moe.go.kr](http://www.moe.go.kr)
- 김선정 · 문인옥(2004). 시청각 및 토론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보건연구*, 30(1), 85-95.
- 김신정 · 양순옥(2004). 중학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 *야동간호학회지*, 10(3), 350-360.
- 김영혜(2000). 한국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시청각프로그램이 성역할정체감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0(6), 1556-1567.
- 김현정 · 이귀옥(2000). 남녀 청소년의 성지식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161-181.
- 김혜원 · 이해경(2000).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2), 29-45.
- 문화방송(2000). 2000년 MBC 청소년 백서.
- 박효미 · 임미영(2003). 멀티미디어 성교육 프로그램이 남자 중학생의 성 태도와 성 지식에 미치는 효과. *야동간호학회지*, 9(2), 173-179.
- 박희성 · 이진숙 · 박초아 · 정민자(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성태제(199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 양서원.
- 송정아 · 최혜영(1999). 청소년기 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4(1), 39-59.
- 안양숙 · 정혜정 · 이정숙(1997). 남녀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5, 137-154.
- 이근희(2002).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 법문사.
- 이길자 · 정은자(2001). 성교육 프로그램이 올바른 성지식과 긍정적인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남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10(3), 276-289.
- 이문희(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필화 · 조 형(1992).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8, 127-170.
- 전경숙 · 이효영 · 이선자(2004).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21(1), 45-68.
- 정금희 · 김신정 · 양순옥(2003). 성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9(4), 420-431.
- 최정훈 · 이훈구 · 한종철 · 윤 진 · 정찬섭 · 오경자 (1997). *인간 행동의 이해*. 서울 : 법문사.
- 최혜숙 · 강순자 · 여성희(2004). 중학교 교과서 성교육 관련 내용 분석과 중학생의 성지식 수준 및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2(3), 236-246.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2001).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08(2), 498-502.
- Baldwin, S., & Baranoski, M. V.(1990). Family interactions and sex education in the home. *Adolescence*, 25, 573-582.
- Booth, C. L., Rubin, K. H., & Rose-Krasnor, L.(1998). Perceptions of emotional support from mother and friend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preschool attachment security. *Child Development*, 69(2), 427-442.
- Crawford, M., & Popp, D.(2003). Sexual double standards : A review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two decades of research. *The J. of Sex Research*, 40(1), 13-17.
- DeGaston, J. F., Weed, S., & Jensen, L.(1996).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sexuality. *Adolescence*, 31, 217-231.
- Fisher, T. D.(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and college students'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as a function of parental proximity. *The J. of Sex Research*, 24, 305-311.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77-290.
- Lefkowitz, E. S., Gillen, M. M., Shearer, C., & Boone, T.(2004). Religiosity, sexual behaviors and sexual attitudes during emerging adulthood. *The J. of Sex Research*, 41(2), 150-160.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 P. Vincent(Eds.)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ment, and theory* (Vol. 2, pp.131-182). Greenwich, CT : JAI.
- Milhausen, R. R., & Herold, E. S.(1999). Does the sexual double standard still exist? : Perceptions of university women. *The J. of Sex Research*, 36(4), 361-368.
- Moran, J. R., & Corley, M. D.(1991). Sources of sexual information and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of Anglo and Hispanic adolescence. *Adolescence*, 26, 857-864.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 NY :

The Free Press.

Sprecher, S., Regan, P. C., McKeinney, K., Maxwell, K., & Wazienski, R.(1997). Preferred level of sexual experience in date or mate : The merger of two methodologies. *The J. of Sex Research*,

34(4), 327-337.

Weiderman. M. W.(1993). Evolve gender differences in mates preferences : Evidence from personal advertisement. *Ethology and Sociobiology*, 14, 331-352. preferences

---

2005년 8월 25일 투고 : 2005년 10월 25일 채택